

제멋대로 상상해 본 '4월 총선'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회자정리(會者定離)란 말이 있다. 사람은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거저필반(去者必返)이란 말도 있다. 떠난 자는 언젠가 돌아온다는 뜻이다. 모두 불경(佛經)에 나오는 말이다. 그래서 스님이었던 한용운도 '임의 침묵'에서 그리 노래했던 것일 게다.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석 달 뒤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정치판에서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것'은 밥 먹고 차 마시는 일과 같다. 그야말로 다반사(茶飯事)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분열의 시대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다. 한데 지금은 보수도 갈라지고 진보도 갈라

졌다. 오히려 분열이 심한 곳은 보수 정당이다. 이대로 가면, 좋은 싫든 다당제 구도가 정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분오열(四分五裂)된 보수 진영은 하도 많아 그 이름을 일일이 헤아리기도 숨이 찰 정도다. 제1야당인 황교안의 자유한국당,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바른미래당에서 갈라져 나온 새로운보수당, '태극기 부대' 집회를 이끌었던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이재오-안상수-홍준표 전 의원 등이 참여한 국민통합연대, 그리고 순천·곡성 등을 떠나 서울 지역 출마를 위해 새당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 '이정현 신당'까지.

보수 진영은 사분오열되고

한때 국민의당 붐을 일으켰으나 유승민의 바른미래당과 합쳐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던 안철수 전 대표도 곧 미국에서 돌아온다. 정치 지형 변화를 감지한 '절묘한 타이밍'이다. 안 전 대표의 귀국이 과연 한국 정치에 다시 한 번 태풍으로 몰아칠 수 있을 것인지도 세인들의 관심사다. 지난 20대 총선 때만 해도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 총 28개의 의석 중 23석을 석권했다. 새로운 정치를 표방한 '안철수 돌풍'. 그러나 지금은 빛이 많이 바래 신선

도가 떨어진다. "아 옛날이여."

이런 가운데 보수 정당들이 최근 대통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이 뒤늦게나마 통합에 나선 것은 이대로 갈 경우 총선에서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날개 꺾인 보수'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의식이야.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은 그동안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왔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유승민 측과 그럴 경우 당내 친박 세력과 극우 세력이 등 돌릴 것을 염려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사이에 '살바싸움'이 치열했다.

그럼에도 황 대표가 '탄핵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새보수당의 주장에 미지근하게나마 동의함으로써 일단 통합 논의 본격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새보수당은 친박 세력과 극우 보수 인사들까지 합치는 '원칙 없는 통합'은 결코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보수 대통합의 길은 여전히 아득해 보인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는 중도 개혁 세력도 빨방이 갈라진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의당에서 파생한 정동영의 민주평화당, 여기에서 다시

갈라져 나와 박지원-천정배 등이 버티고 있는 대안신당이 있다. 그리고 준연동형 선거제로 보다 많은 의석 확보가 기대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고무돼 있는 정 의당.

호남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이들 세력 중에서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당은 대안신당이다. 대안신당은 지난 주말 초선인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을 새 당 대표로 추대했다. 파격적이었다. 'DJ(김대중)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그는 수락 연설에서 "초선인 저를 추대한 것은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문을 활짝 열리는 뜻"이라며 "이 순간부터 제3세력 통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안신당은 이날 창당과 동시에 원내 5당(7석) 지위를 갖게 됐다. 교섭단체 세 곳(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다음이며 얼마 전 출범한 새로운보수당(8석)보다는 1석이 적다. 하지만 소속만 바른미래당(비례대표)에 두고 대안신당 활동을 하는 장정숙 의원까지 더하면 사실상 8석으로 호남 최대 세력이자. 현 세 호남 의원의 분포는 민주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바른미래당 5석이다.

대안신당은 제3지대 합중연형(合從連橫)에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강감한 중도·개혁 제3세력의 통합'(최 대표)을 목표로 하는 대안신당의 첫 발걸음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추진이다. 이어 통합 대상으로 민주평화당과 나머지 무소속 전부를 거론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여전히 '호남 자민련'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안신당 발 빠른 통합 행보

따라서 '호남' 색깔을 조금이나마 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년4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하는 '안철수카드'가 안성맞춤이긴 하다. 그를 우군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국민의당 시즌2'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계가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국민의당-바른미래당 통합의 전철을 다시 밟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안철수는 과연 어느 길로 나갈 것인지 궁극해진다. 줄곧 중도 개혁을 자처해 온 그이지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는 어느 길로 간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좋게 말하자면 스펙트럼이 넓고 나쁘게 말하자면 정체성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개인적으로는

그가 이번엔 새로운 당을 만들어 한국당과 통합에 나섰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 이런 말 한다 해서 서운해 할 건 없다. 과거 YS(김영삼)은 야합 소리를 들으면서도 3당합당에 성공, 민정당이라는 호랑이 굴에 들어간 뒤 곧내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던가.

안철수가 한국당 속에 들어가 치열하게 싸워 이긴 뒤 대선의 길로 나아가고, 이어 민주당이나 그 밖의 진보 세력 후보와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런 상상이 아니라 공상일지 분명하지만, 그래도 즐겁다. 그렇게 되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지금의 한국당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나를 테니.

그런 그렇고 안철수 세력이 한국당으로 가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호남 정치 복원은 어떻게 되느냐? 뭐 걱정할 것 없다. 민주당과 대안신당 또는 정의당 후보의 치열한 대결과 함께, 여기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호남 정치를 이끌어 갈 테니. 그리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일당 독점보다는 진보 진영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호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나. 그래 우리는 그때 가서 당보다는 인물만 잘 보고 투표하면 되지 않겠는가.

첫 민선 광주시체육회장에 김창준 당선

“광주 체육 발전위해 봉사할 것”

김창준(75·사진) 전 광주시체육회 고문 단장이 광주시체육회 첫 민선 회장에 당선됐다.

김창준 후보는 15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표(284표) 가운데 147표를 획득, 137표를 얻은 전갑수(59) 전 광주시배구협회장을 불과 10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16일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광주시체육회를 이끌어갈 게 됐다.

김 당선인은 ▲시체육회의 안정적 재정 조달 시스템 구축 ▲경쟁력 있는 전문체육 육성 ▲시민 모두 참여하는 생활체육 육성 ▲광주 체육인 복지확대·소통강화를 핵심 4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불미스런 갈등을 모두 풀고 광주 체육인과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광주 체육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시민과 체육인이 모두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광주 체육을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시 5개 자치구 가운데 3개 자치구는 단독 후보가 등록해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동구는 구제길 세종요양병원 이사장, 남구는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 광산구는 최갑렬 삼일건설 회장이 단독으로 등록해 선거를 거치지 않고 당선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여수시가 여수와 고흥을 잇는 해상 교량 5곳을 설 연휴인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임시개통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고흥 영남면과 여수 적금을 잇는 팔영대교.

여수~고흥 5개 해상 교량 설 연휴 임시 개통

2월말 정식 개통 앞두고 23~28일...81분서 30분으로 단축

전남 여수시는 여수와 고흥을 잇는 해상 교량 5곳을 설 연휴인 23~28일 임시 개통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화양~적금 도로는 조발도와 낭도, 둔병도, 적금도 등 4개

섬이 5개의 다리로 연결됐다. 2011년 12월 착공해 2월 말 개통을 앞둔 이 도로는 총연장 17km로 3908억원이 투입됐다.

교량이 개통되면 여수에서 고흥까지는 거리가 84km에서 30km로 54km가 단축된

다. 이통 시간도 81분에서 51분이 줄어 30분인 것 같 수 있게 된다.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물류비용을 아낄 수 있고 관광 인프라도 확충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관계자는 "5개의 다리가 모두 개통하면 차를 타고 남해안의 푸른 바다와 연안, 섬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창화 기자 chkim@

청정 전남, 미세먼지 전국서 가장 깨끗

2018년도 대기질 평가보고

전남이 지난 2018년 조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깨끗했다.

15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도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지역 미세먼지(PM-10) 농도는

대기질 평가보고서는 1년간의 도시대기 및 중금속 등 측정방법로 대기오염도 관측 자료를 종합적으로 집계·분석해 정책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됐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경보 시스템 가동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연구원은 대기오염 경보나 고평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같은 상황 시 도민이 직접 신청해 문자나 팩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전남도대기질정보시스템'(http://air.jihe.go.kr)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상만사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역안내 •

북구	동광 266-1920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웅동 433-1503	우산 433-1503	
동구	남광 675-5530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앙 222-9054	충장 222-8171	
남구	남부 652-0175	백운 651-1833	봉선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풍암 603-0311
	화정 369-1625		
광산구	운남 952-1687	월곡 959-1920	침단 973-2900
	하남 955-0451	광산 944-0444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에게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담양 월산면 월계리 대지 등 2268㎡ 전원생활 적합 교환가능 1억5천
- 월산동 통고개역 인근 소방도점 2층 주택 106㎡ 집 112㎡ 공방 등 적합 1억3천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방 좋은 1억3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664㎡ 주택 124㎡ 4933천 조용한 생활 적합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가능 2억
- 목포시 외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치고 평당 23만원
- 화순 능주면 소재지 2612㎡ 전원생활적합 2억7700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450㎡ 건물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령동 3647㎡ 빌라 등 적합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20억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참고 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 건물

-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추령고개 403㎡ 가게 197㎡ 카페용·편의점 적합 1억3000
- 서석동 조대앞 4층 상가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충장로 47㎡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200 매도 26억
- 월산동 농성초교 도로점 190㎡ 2층 상가주택 185㎡ 매도 3억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카페용 대지 73㎡ 2층 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 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빌 318㎡ 건물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목포시 대양동 1층주거지 4121㎡ 투자다세대 등 적합 7억2천
- 남구 월산동 1층주거지 637㎡ 원룸다세대 적합 7억8천
- 구례군 구례읍 서서천면(영의면) 11050㎡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
- 목포대 부근 청계면 도림리 2층주거지 4413㎡ 577천 농축 4억3천 매도 19억천
- 화순군 동면 서성계 별장 대를교환가능 은행 3억5천 있고 매도 6-7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매트·식당·다기구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 9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